

인 사 말 씀

사부대중의 원력과 소중한 실천이 모인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 불사가 다가오는 9월로 뜻 깊은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위신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멀리 아프리카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대작 불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교에 맞추어 이운하여 모시게 될 비로자나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탄생불과 함께 진신사리 3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신사리는 아도 화상께서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에서 모셔와 신라 최초 사찰인 선산의 백련사지 석탑에 모셔오던 분과사리기에, 이 또한 한국 불교가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귀중하고 성스러운 오늘 이 자리는 아프리카 교육불사를 뜻 깊은 일이라 공감하고 수희 동참하신 광제사 경원스님의 발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크게 감사할 일이며, 그 뜻이 잘 전해지도록 여법하게 이운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화엄경에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다”고 하셨듯이, 오늘 점안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감싸 안으시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들은 자비로우신 광명으로 이고득락하여 성불한다는 희망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과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겠다는 정진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삶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크나큰 지혜와 광명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며 참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서로를 축원하고 모든 생명이 더없이 안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원력과 실천으로써 근현대 문명사회의 희생이었던 아프리카도 이제는 청소년들이 근면하고 건실하게 지혜의 싹을 틔워, 미래의 희망을 힘차게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앞으로도 탄자니아 학교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실천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고 온 세상에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